

자동차산업

미국 자동차 수요둔화 우려 지속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12월 및 16년 미국 자동차시장 정리

12월 미국 산업수요는 전년동기대비 줄어든 영업일수 (15년 28일에서 16년 27일로 -3.6% YoY 감소)에도 불구하고, 높은 인센티브와 견고한 light-truck 수요에 힘입어 +3.0% 증가한 169만대 기록하였음. 이에 따라 SAAR는 전년 동월 1,722만대에서 +6.7% 증가한 1,838만대로 시장기대치를 상회.

12월 판매호조에 힘입어 16년 연간 산업수요는 전년대비 +0.3% 증가한 1,753만대 기록하였음. 인센티브 증가와 Fleet 판매 확대에도 전년대비 근소한 성장을 기록하는데 그쳤다는 점에서, 산업수요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여전하다고 판단.

현대차 6.2만대 (-1.8% YoY), MS 3.7% (-0.18%pt YoY)

대부분 차종의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(엑센트 +53.0% YoY, 아반떼 37.3% YoY, 쏘나타 +14.1 YoY), 주요 볼륨 모델인 쏘나타의 판매량이 -39.5% YoY 감소하며 MS 소폭 하락 .

기아차 5.4만대 (+0.2% YoY), MS 3.2% (-0.09%pt YoY)

D-seg 이상 세단과 RV 판매부진 (K5 -8.1% YoY, K7 -28.4% YoY, 쏘렌토 -8.5% YoY, 카니발 -12.4% YoY)에도 불구하고, 소형 세단의 판매호조 (Rio +27.3% YoY, K3 +39.7% YoY)로 전년동기대비 전체 판매대수 소폭 증가.

주요 브랜드별 YoY 판매볼륨 증가 폭

전체산업 +3.0%, 현대차 -1.8%, 기아차 +0.2%, 토요타 +2.0%, 닛산 +9.7%, 혼다 +6.4%, GM +10.0%, Ford +0.1%, VW +16.0%.

주요 브랜드별 YoY 인센티브 증가 폭

전체산업 +20%, 현대차 +31%, 기아차 +21%, 토요타 +13%, 닛산 +16%, 혼다 +24%, GM +14%, Ford +34%, VW +23%.

Compliance Notice

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7년 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월 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